

대한국오리협회 국장 조문규

2009년 오리산업전망

국내 오리산업은 21세기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축산업 중 하나이다. 타축종에 비해 국내 오리산업은 아직도 규모가 영세하고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산업적 비중 역시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타 축산업이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각 분야의 기초적 학문의 활발한 연구 바탕 위에서 성장을 해왔다고 한다면 국내 오리산업은 이 같은 연구나 정책적인 지원이 미약한 상태에서 오늘날과 같은 규모로 성장발전한 것으로, 이는 향후 오리산업이 충분히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기불황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 그에 따른 오리관련 외식업소의 감소 등의 악조건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 속에 2009년 오리산업을 전망해 보기로 하자.

I. 서언(序言)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똑같은 생각으로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한 바 있다. 새해 계획한 일과 실현시킨 일을 생각해 보니 부끄러운 자괴감이 몰려온다. 개인적인 계획은 차치하고 오리업계의 사무를 보는 한 사람으로 오리 산업종사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고 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올해 꼭 실현시키고 싶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첫째,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의 확대가 그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시기적으로 좋은 기회였다. 오리업계의 숙원과제 12가지를 선정하여 정책제안 자료를 제출했고 일부과제는 실현되고 일부과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채택되어 개선을 기다리고 있다.

정책제안 자료 처음으로 제시된 오리고기 균납은 지난 2003년부터 문을 두드린 이후 지난 5월 균납품목으로

선정되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청년이 오리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5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실현됐다.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확대와 수입육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정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실현과제는 수입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3%내외로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바로 채택되지 못하고 2009년도 입법을 추진하여 2010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오리고기 브랜드 육성사업 역시 장기적인 과제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육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10년 또는 5년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1천호에 대해 개소당 2억씩 2천억의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으나 2008년도 수렵예산(70억원, 사업신청 23억)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검토 후 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친환경 축산의 대상축종에 오리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HACCP 인증 농장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 있으나 여건 (HACCP 인증농장 및 유기축산, 친환경인증농장 등 3 요소 중 2개 인증) 이 성숙되면 언제든지 대상축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받았고 친환경축산 인증의 근간이 되는 친환경축산 설계도는 정책에 반영되어 오리축산 설계도가 마련되어 친환경축산을 하고자하는 사육농장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오리의 주요 질병 방역대책 사업은 전염성 간염 및 오리패혈증에 대한 실증 실험을 통해 백신이 상용화되면 종장기 과제로 검토하여 추진될 전망이다.

종자오리 개량을 위해 건의한 원종오리 생산기반 마련은 부지선정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올해 생산기반이 마련될 전망이고 종자오리 등록제 실현은 축산법 개정으로 올 상반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사업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게 되어 새삼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오리고기 수출산업 육성사업의 건의는 업계의 세부방안이 수립된 이후 검토키로 하였으나 추진이 미진한 가운데 기 수출되고 있는 오리털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 대상품목으로 확정되어 수출업체에 물류비가 지원될 수 있게 됐다.

연구인력 확대 및 통계조사 사업은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실현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풀어야 할 숙원과제로 남게 되었으며 분뇨처리 및 축산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은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업계의 실현 의지를 모아 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로 남았다.

사육업계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산이 반영 확보되어 올해부터 오리 분야의 교육사업이 정부의 정책지원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협회 숙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종자오리 데이터베이스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자금수급안정위원회의 사업예산

이 뒤 늦게 정부가 승인하여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그러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질병 여파의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내놓을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전국의 종자오리 사육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사업성과는 올해에 나타날 전망이다.

셋째, 오리고기 소비확대와 시장조사,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는 의무자조금제도 사업 추진이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2003년부터 사업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난해 역시 사업추진을 계획했으나 뒤로 미뤄지게 됐다. 다행히 올해 AI발생으로 각종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의 자조금 2억5천 내외를 거출하여 지난해와 올해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매우 다행이지만 한우, 양돈에 비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II. 2008년 오리산업

오리 산업은 지난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물론 4월에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질병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감소가 경기악화의 주 원인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장기호황에 따른 사육물량 증가와 HPAI의 발생시기가 사육물량이 증가되는 시기와 맞물린 것이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1 종자오리 사육 및 새끼오리 생산

종오리 사육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산란사로 생산량을 보면 지난해 10월말까지 31,730톤이 생산되어 월 평균 3,173톤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생산량 27,693톤에 비해 115% 증가된 것이다. 전체를 놓고 보면 크게 증가된 것 같지 않으나 분기별 생산량을 보면 종오리 사육물량 증가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즉 2008년 1/4분기 종오리 사료 생산량은 12,253톤으로 월 평균 4,084톤이 생산되어 전년 동기 9,353톤 (평균 3,117톤) 대비 31% 증가했다. 2/4분기 역시

10,474톤이 생산되어 전년 동기 8,015톤(평균 2,671톤) 대비 31% 증가했다.

그러나 AI 발생이후 3/4분기 6,744톤으로 월 평균 2,248톤이 생산되어 전년 동기 7,241톤 대비 7% 감소하고 10월에는 2,265톤이 생산되어 전년 동기에 비해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상반기에 사육물량이 크게 증가한 이후 하반기 들어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에 따른 종자오리 사육물량은 1/4분기에 월 평균 596천수, 2/4분기 557천수, 3/4분기 368천수가 사육되었고 이중 폐킨종 암컷 사육물량은 월 평균 1/4분기 413천수, 2/4분기 391천수, 3/4분기 265천수, 10월에는 247천수가 각각 사육된 것으로 집계되어 하반기 경기불황에 따라 사육물량 역시 큰 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종자오리 개량을 위해 도입된 PS 종자오리 도입물량은 216천수가 도입되었고 암컷기준 18만 수가 도입되어 영국의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비슷한 물량이 도입되었다.

여기서 생산된 폐킨종 새끼오리 생산 추정물량은 11월말 현재 총 5천8백만수에 월 평균 5,270천수 내외가 생산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19,244천수, 2/4분기 19,280천수, 3/4분기 11,768천수가 생산되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물량이 4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 육용오리 생산

지난해 육용오리 생산물량 역시 상반기에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하반기 큰 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육용오리 생산 추정물량은 59,664천수

가 생산되어 전년에 비해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사육물량을 보면 1/4분기 16,745천수, 2/4분기 19,353천수, 3/4분기 12,736천수, 4/4분기 10,825천수가 각각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같은 생산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상반기 36%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1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고 특히 12월 생산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육용오리 가격이 9개월째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된 장기불황여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표 1. 참조】

3 오리고기 소비 및 가격동향

지난해 오리고기 소비는 1/4분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내외 증가하였으나 4월 AI발생으로 소비물량이 급감하여 전년에 비해 70% 수준에서 소비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기별로 소비동향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 시 1/4분기는 15%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는 42% 수준에서 머물고 3/4분기에는 70%, 4/4분기에는 77% 수준에서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계열업체 6개소, 일반 유통업체 4개소 등 총 10개 업체의 일평균 판매물량을 집계한 자료 기준으로 분석됐다. 오리고기 소비 감소의 주요인은 AI 발생 장기화에 따른 오리고기 전문판매장의 감소, 경기침체의 의한 외식산업 경기악화 등 소비기반 약화, 수입쇠고기 판매물량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육용오리 가격은 1/4분기를 제외하고 9개월간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되어 업계의 경영악화가 그 어느 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용오리 분기별 평균

【표 1】 육용오리 생산동향

▶단위: 천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년비증감
2008년	5,259	5,348	6,138	6,366	6,194	6,793	5,136	4,614	2,986	3,462	3,640	3,723	59,664	109
2007년	3,474	3,410	4,094	4,359	4,768	5,093	5,574	4,568	3,554	4,237	4,774	5,284	54,545	127
증감(%)	134	139	134	146	142	133	100	101	84	82	76	70		

【표 2】 육용오리 소비동향

▶단위: 천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8년(A)	47.2	42.9	47.7	32.7	10.7	23.8	41.8	45.0	40.5	44.9	41.9	-	38.1
2007년(B)	41	37.5	41.7	46.3	58.2	66.1	66.8	58.5	57.9	53.5	60.1	66.1	54.5
증감(A/B)	115	114	114	71	18	36	63	77	70	84	70	-	70

*계열 6개, 일반유통업체 4개 등 총 10개 업체 조사기준

【표 3】 2008년 육용오리 가격 및 생산비 비교

▶단위: 원/생체 3kg/수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년 평균
육용가격(A)	5,466	4,701	5,628	5,625	5,330
육용생산비(B)	5,300	5,400	5,877	6,100	5,669
증감(%)	103	87	96	92	94

가격은 1/4분기 5,466원(생산비 5,300원), 2/4분기 4,701원(생산비 5,400원), 3/4분기 5,628원(생산비 5,877원), 4/4분기 5,625원(생산비 6,100원)에 거래되어 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보여주고 있다.【표 2, 3. 참조】

III. 2009년도 오리산업 전망

올해 국내 오리 산업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질병 및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량 감소와 사육물량 증가에 따른 육용오리가격 폭락에 따른 경영어려움 여파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는 육용오리 생산물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가격인상이 인상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냉동재고물량이 워낙 많고 소비물량은 경기침체에 따른 외식소비 감소로 크게 호전될 수 없다는데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농장 및 부화장, 계열업체 등 전 업계가 재고부담에 의한 유동성 부족을 이기지 못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1 종자오리 및 새끼오리 생산

올해 종자오리 사육업계는 전년에 비해 생산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경영 현실은 전년에 이어 크게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축산법 개정에 따라 종자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은

의무적으로 해당 검정 기관에서 발행한 종자오리 일반 검정 증명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종자오리 사육에 따른 종축업 등록을 하는 등록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종자오리 개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PS, F1 종자오리 사육구분과 새끼오리 생산실태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아무튼 지난해 10월 종자오리 사료 생산물량을 기준으로 종자오리 사육물량을 추정하면 총 종오리 사육물량은 326천수로 페킨종 종자오리 사육물량은 280천수(암컷 230천수)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 감소했다. 따라서 여기서 생산되는 페킨종 육용오리 새끼생산량은 4,000천수 내외로 전망되어 전년 동기에 비해 32% 내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물량 감소는 최근의 배합사료 가격인상과 육용오리가격하락 장기화로 종자오리 사육물량 및 새끼생산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기초한 올 1/4분기 새끼오리 생산량은 월 평균 3,848천수, 내외로 전년 동기에 비해 40%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새끼오리 가격 역시 육용오리 업계 경기의 장기불황 여파로 입식이 줄어들고 있어 상당기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 육용오리 생산 및 전망

올해 육용오리 사육업계는 지난해 생산비에도 못 미치

는 시세가 9개월째 지속되면서 입식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육용오리 생산은 당분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육물량 감소의 원인이 되어 1/4분기 월 평균 생산 예측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35% 내외 감소한 3,600천수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산지 육용오리 가격은 생산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1/4분기 다소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보유한 냉동재고 물량의 현금화가 시급한 업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육용오리 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형성되기까지 상당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③ 오리 가격 및 경기전망

대체적으로 오리고기 소비는 전 세계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침체로 외식소비 역시 상당기간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어 현재의 소비물량이 더 늘어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생산물량이 아무리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냉동재고 물량이 소진되기 까지 육용오리 가격 및 도매오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고 보면 오리업계의 경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힘든 상황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냉동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하반기 이후 생산물량이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생산되는 경우 가격 회복세가 빨라져 생산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V. 결론(結言)

올해 오리업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사육업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산에 따른 경영적자가 (전년도 생체 수당 : 339원) 호전되지 못하면서 생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개별농가 및 위탁농가의 좌초가 예상된다. 아울러 종자오리 사육업계 역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규모 축소 및 도산하는 업체의 양산이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오리 계열화업체 및 유사 계열 유통업체 역시 자금 유동성 부족에 의한 업체를 중심으로 규모 축소 및 도산하는 업체가 나타나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업계가 현재 오리업계가 처한 현실(소비량 감소, 냉동재고 물량 확대, 생산에 따른 손실 발생이 9개월째 이어지는 장기불황 도래)을 받아들이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 실천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의 공생대안은 협회를 중심으로 보다 획기적인 아이템에 의한, 보다 현실적인 오리고기 소비홍보 대책의 시행에 있다. 소비확대 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냉동재고 소진이 업계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협회, 업계, 정책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자.

둘째, 과거 및 이미 예상된 손실에 연연하지 말고 향후 6개월 또는 1년 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기희생적인 생산량 감축을 단행하자. 특히 종자오리를 보유한 계열업체, 부화장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새끼오리를 생산, 또는 입식하여 판매하지 못하는 종자오리 물량을 보유한 업체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한다. 시간이 길어지면 불황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전 업계를 공멸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우를 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호황을 기대하는 업계 관계자는 아직 보지 못했다. 또 버티면 된다는 업계의 인식은 팽배해 있고 호황이 도래하면 한방에 역전할 수 있다는 기대에 차 있다. 기대가 현실로 다가올 날을 학수고대하지만 그 날이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에서 피해 최소화와 업계 공생을 위해 내 스스로 힘을 보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되새겨 실천의 각오를 다져본다.